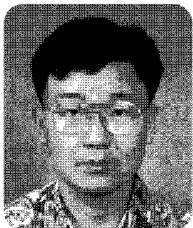


PED의 발생동향 및 피해실태와 퇴치전략

돼 지 유행성 설사(PED)는 전 일령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어린자돈에 치명적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가 특징이다. 발병률은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에서는 100%에 가깝지만, 모돈이나 웅돈에서는 다양한 발생률을 보이고 어떤 개체는 임상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성돈도 많다. 증상은 어린 일령일수록 심하고 자돈의 폐사율은 일령에 따라 다르지만 생후 5일 이내 자돈은 90% 이상 폐사가 발생하며, 7일령 이후는 폐사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초유를 섭취하여 몸안에서 저항성을 만들지 못하고 이것이 설사로 이어지면서 면역항체가 없어져 많은 폐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 상 옥 원장
중앙동물병원

1. 효과적인 유행성설사(PED) 관리

가. 철저한 차단방역의 이행

- ①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근대를 비롯하여 출입문 차단
- ② 돼지 구입은 설사병 발생이 없는 종돈장을 선택하여 구입한 날로부터 2주간 격리사육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③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방문객의 출입제한과 동시 철저한 소독 후 출입
- ④ 정기적인 소독의 생활화를 기본으로 돈사소독, 돈체소독, 출하대, 농장입구, 돈사입구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⑤ 지속적인 구서, 구충 및 야생동물과 조류의 접근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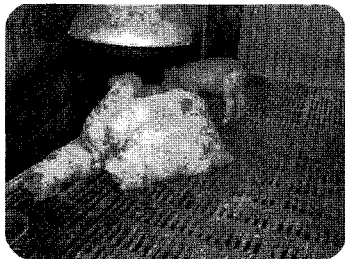
나. 환경 및 사양관리

① 일령별 돈사내의 적정한 온도 및 습도유지(1~3일령: 32~30℃, 4~7일령: 30~28℃, 8일령 이상: 26~21℃, 모돈: 15~18℃, 돈사내 습도 유지: 60~70%)

② 적절한 환기유지: 돈사내 먼지나 유해가스가 차지 않도록 조치

③ 스트레스 요인 제거: 밀집사육, 돈군의 재편성, 온도

<PED 발생 농장의 사진 1, 2, 3>



<사진 1> PED 발생의 초기상태로 전신에 수양성 설사변이 묻어 있다.



<사진 2> PED 발생 1일후 과도한 위축과 체온저하로 서로 포개어 움직이지 않는다.

급변 등

- ④ 임신돈의 사양관리 개선
- ⑤ 이유후 일령별 분리사육
- ⑥ 정기적인 수질 검사

다. 예방접종 실시

① 예방접종: 모돈(분만 5~6주전 1차, 분만 2~3주전 2차), 후보돈, 웅돈(중부전 2~3주 간격으로 반드시 2회 접종 실시)

2. PED가 발생된 농장의 방역

가. 발병초기에 감염된 포유자돈은 즉시 도태

- 설사병 발생돈방의 철저한 소독 및 병원체 확산 방지
- 소독을 강화하여 돈사간 및 타농장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

나. 발병 돈사는 특별히 소독을 강화하고 관리인의 출입 금지

- 발병돈사 관리인은 타농장이나 돈사를 출입하지 말 것

다. 분만전에 돈방소독은 물론 모돈의 유방과 관리인의 손, 신발, 기구 등을

소독한 후 분만관리

라. 분만자돈은 개체마다 반드시 소독된 수건 등으로 입과 몸을 닦아주고, 초유를 충분히 먹도록 도와주며 보온에 각별히 신경쓸 것

마. 분만자돈의 충분한 초유공급을 위하여 단제, 단미, 단치를 2~3일 후에 실시

바. 분만대기사의 모돈은 발병돈사와의 다른 돈사에서 분만을 유도하고 이동시에 돈방과 돈체소독 철저

사. 분만사에 임신돈이 입식되면 매일 2회 이상 돈분을 제거하고 소독을 철저

아. 설사증세가 없는 분만사는 전담관리인을 별도로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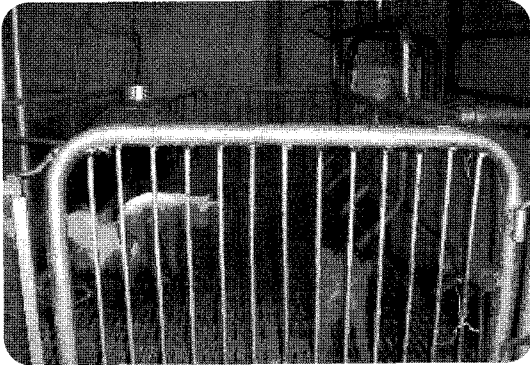
자. 분만사는 온도, 습도, 환기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

차. 분만사 입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함은 물론, 분만사 내에도 소독조를 비치하여 관리인의 손과 강화 및 관리기구 등을 수시로 소독

카. 예방접종 요령에 따라 임신돈은 매산차마다 반드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웅돈과 후보돈도 2회 접종

3. 설사병이 지속되고 있는 농장의 방역관리

가. 설사병 증세가 심하고 농장 전체로 확산되어 폐사가



<사진 3> 회복되어 가고 있는 PED 감염자돈, 서서히 활력이 좋아지고 있다.

한 진단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제스키, PRRS 등이 있는 농장은 수의사와 상의

다. 인공감염 재료는 설사를 시작하는 자돈의 소장을 채취

나오면 부득이한 경우 인공감염을 실시

나. 인공감염은 반드시 정확

하여 감염재료로 사용

라. 인공감염은 분만예정일

이 10일 이상 남은 모든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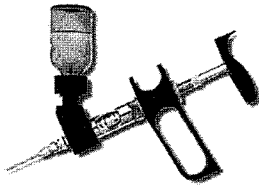
모돈 및 후보돈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때에 광범위 항생제도 함께 투여

다. 분만사는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에 힘쓰며 외부인은 출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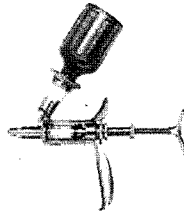
바. 분만대기사에 있는 임신돈은 분만사로 이동 전에 돈방과 돈체소독 철저

사. 인공감염 실시 후에도 반드시 백신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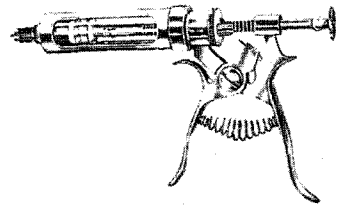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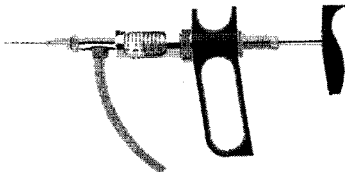
①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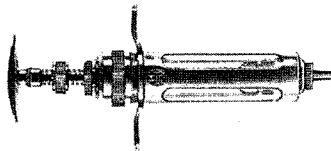
② FERROMATIC 주사기(5ml, 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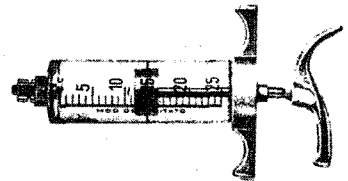
③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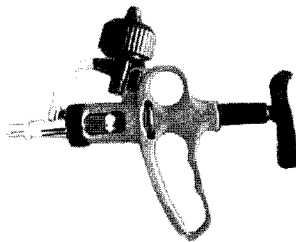
④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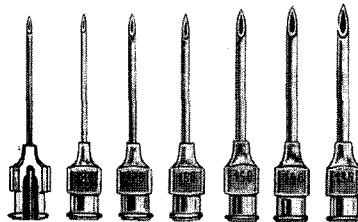
⑤ 철제주사기(10, 20ml)



⑥ P.V.C 주사기(반영구) 10ml, 20ml



⑦ P.V.C 연속주사기(2ml, 5ml, 10ml)



⑧ 주사기용 철침

KW 강화축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동 694-1 우성아파트 101동 1407호

☎ (02)305-2548, (02)372-2461

H·P : 011-9787-2548

FAX : (02)843-1050